

###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0>

#### 삼매와 부처님 경계에 들어옴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을 부처님의 사자 빈신삼매에 들게 하기 위해서 놓는 보조삼매법계문(普照三世法界門)이라고 하는 큰 광명에 의해 나타난 부처님 경계를 본 보살대중은 부처님의 깊은 삼매와 큰 신통력을 볼 수 있었다. 이 보살들도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 알맞은 불법을 보이며 끊임없이 교화하였다. 그들은 과거에 부처님들이 계신 데서 선근을 심었거나 비로자나불이 과거에 교화하여 성숙하게 한 이들이기 때문에 여래의 부사의한 깊은 삼매와 온 법계 허공계의 대 신통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입법계품에서는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신통 변화의 바다의 방편문을 다음과 같은 열 가지 내용으로 설하고 있다. ① 법신에 들어가 ② 육신에 들어가 ③ 옛적에 성취한 행에 들어가 ④ 원만한 여러 바라밀다에 들어가 ⑤ 장엄하고 청정한 행에 들어가 ⑥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⑦ 정각을 이루는 힘에 들어가 ⑧ 부처님이 머무는 삼매와 차별이 없는 큰 신통 변화의 바다에 들어가 ⑨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는 지혜에 들어가 ⑩ 부처님의 결립 없는 변재(變才) 바다에 들어가

이러한 열 가지의 부처님 신통 변화의 바다의 방편문에 보살들은 갖가지의 이해·도(道)·문(門)·들어갈·이치·지혜·방편·삼매 등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입법계품에서는 특히 법계를 두루 장엄하는 삼매·여래의 경계에

그렇다면 어떠한 까닭으로 보살이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부처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입법계품에서는 부처님의 경계가 지적(知的인) 분별을 초월한, 언어와 생각이 끊어진 경계이므로 부처님의 교설로써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삼매로써 설하여졌다. 사자빈신삼매에 의해 드러난 부처님 세계는 만물이 무한의 상관 관계로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상생(相生)의 생명세계를 펼쳐는 영원의 세계였다. 일체의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끊임없이 신통변화를 일으켜 증생을 구제하여 언제나 자비로운 부처님의 커다란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였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현(普賢)의 법계로서, 끊임없이 보현행

### 하나된 마음으로 집중·통일되는 경지

### 지혜에 의해 주체적으로 실증 가능

들어갈 흔들리지 않는 삼매·모든 부처님의 몸을 두루 나타내는 삼매 등 백 가지 삼매를 설하면서, '보살이 이와 같은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삼매로써 비로자나여래의 생각생각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한 삼매의 신통 변화 바다에 들어간다' 설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것은 분명히 보살의 여러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펼쳐지는 화엄의 세계이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이러한 대자비의 생명활동 세계를 자기화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삼매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어떠한 객관의 세계가 일치되게 하여, 주관과 객관이 그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의 경계를 체득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삼매를 내세우는 것은 부처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나 객



###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⑤

#### '원돈 신해문'의 의미

보조지들은 화엄의 법계연기설을 원돈 신해문(圓頓信解門)이라고 지칭한다. 원(圓)이란 말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다. 사물은 부정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게 마련인데, 양자를 모두 배척하지 않고 원만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연기(緣起)에는 번뇌를 발생시키는 물든 연기와 성인의 단계로 나아가는 깨끗한 연기가 있다. 양자는 서로 명백하게 구별되지만, 연기 자체를 터득하게 되면, 양자 모두를 배척하지 않는 보살의 실천이 구현된다.

돈(頓)이란 '점차가 아니라, 단박에 깨닫는다'는 의미다. 번뇌를 일으키는 물든 연기를 보면, 골장 번뇌로부터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번뇌와 해탈은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해탈은 바로 번뇌에 의지하고, 깨끗한 연기에서도 처음 발심을 할 때가 그대로 구경의 깨달음이라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원돈신해문이란 풀이하면, 화

엄이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과 집착적 단계를 존중하면서도 즉각적인 돈오가 강조되는 성품에 대한 믿음(信)과 이해(解)를 강조한 교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화엄교설에 대한 보조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돈보다 신해에 있다. 원돈

스로 그 의미를 사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의 자선이 될 수 없고, 끝내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선지식으로부터 들은 교설을 스스로 소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신해란 바로 교설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듣고 이해하기만 하고, 그것을 몸으로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살의 삶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듣고, 이해한 다음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연습(修)에 의해서, 그것을 체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보조는 원돈의 가르침을 화엄에

### 듣고 이해하고 연습에 의해 체득

(圓頓)이 심성에 관한 관점을 보여준다면, 신해(信解)는 수행에 관한 측면을 드러낸다. 초기불교 이래로 일반적으로 불교수행론은 문사수(聞思修)로 알려져 있다. 문(聞)이란 성인의 가르침을 많이 듣는 일을 말한다. 증생은 무시하여 업(業)의 장애가 강기 때문에 자꾸 경전과 성인의 말씀을 듣게 필요로써, 물든 연기가 깨끗한 연기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스

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보조가 화엄의 가르침을 원돈신해문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실천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을 함축한 용어가 된다. 보조는 선교의 모든 가르침을 성취등지문(醒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간화결의문(看話結義門) 세 가지로 구별한다. 성취등지문은 지혜(慧)

관적으로 실증되는 경계가 아니라, 지혜에 의해 주체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삼매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생명의 세계인 부처님 경계를 스스로 직접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내면적인 사고방식이다.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부처님 경계를 직관(直觀)하고, 자기를 잊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몰입하는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계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체득하여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 신행품(十行道)에서 여러 석욕과 어지러움이 없는 행을 살하는 가운데, "보살은 삼매에 들어 거룩한 법에 머문다"고 하며, 여래현상품에서는 해등보명(慧燈普明)보살이 "은 법계 안 모든 여래는 온갖 모습을 여의었으나/ 이러한 법을 알기만 하면 세상의 바른 길잡이를 보게 되리라/ 모든 보살의 삼매 중에는 지혜의 빛이 온통 밝아서/ 온갖 부처님의 자재한 근본 성품을 능히 알리라" 설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행을 꽃피워서 부처님을 나타내고, 보살의 만행(萬行)을 닦아서 법계를 장엄한다고 하는 의미다. 이것은 원래 법신인 부처님의 훌륭한 경계를 스스로 체득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화엄삼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화엄삼매는 그 세력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육바라밀과 같은 보살행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방편과 신통 변화를 펼쳐서 자유자재하게 여러 가지 부처님의 공덕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삼매에 머무는 사람은 각각 하나의 해탈을 체현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하나의 장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교수>



### 강길전 교수의 불교와 의학 <10>

#### 조작된 생명

1996년 영국 스코틀랜드 로스린 연구소의 윌버트 박사팀이 성장한 포유 동물인 6세도 양(羊)의 체세포를 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제를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선 성장한 암컷 양의 유선(乳腺)에서 체세포를 분리하여 이를 배양액에서 세포배양을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암컷 양에서 핵(核)만을 제거시킨 난자를 배양한다. 그 다음 체세포에서 얻은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하고 핵의 성분과 난자의 성분이 하나의 세포로 잘 융합되도록 전기자극을 가한다. 4-5일이 지나면 배자(胚子)가 형

체의 합성이 가능하면 생명기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생식 세포와 의식체가 합치는 경우 육체는 양쪽 부모를 닮게 되고, 체세포와 의식체가 합치는 경우 육체는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가 가능하나 그 육체속에 갇힌 의식체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젓을 많이 생산하는 젓소를 복제할 경우, 복제된 젓소는 모양은 똑같지만 기능 면에서는 반드시 얻은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하고 핵의 성분과 난자의 성분이 하나의 세포로 잘 융합되도록 전기자극을 가한다. 4-5일이 지나면 배자(胚子)가 형

### 생명체 '생산품'으로 전락되던 안돼

### 자연질서 파괴등 여러 부작용 내포

성되는데 이 배자를 다른 양의 자궁, 즉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시킨다. 이렇게 하여 일정한 임신기간이 지난 후 태어난 것이 얼마전 죽은 '돌리'이다.

양 복제 성공이후 많은 종류의 포유 동물의 복제가 가능했고, 드디어 2002년 12월 27일 인간의 복제가 성공했다는 의문을 접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죽은 사람도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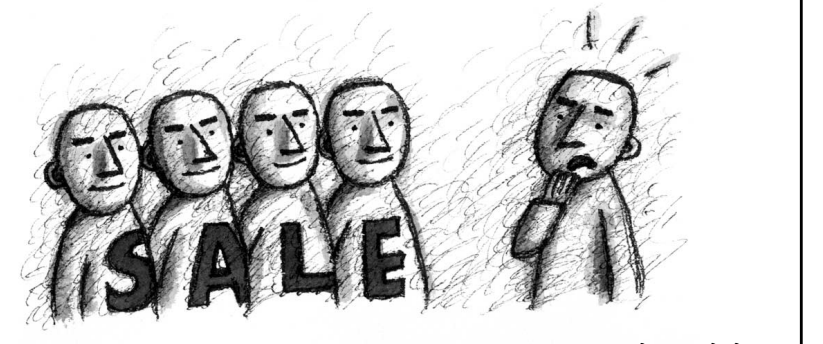
그래서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동물복제를 포함한 인간 복제에 대한 찬반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입장은 무엇일까.

부처님법에 의하면 생명은 생식세포든 체세포든 관계없이 세포와 의식

과 같다.

첫째, 체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이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는 과정 등에서 잘못하여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 둘째, 아기는 남자와 여자의 성교에 의해 출산해야 하며, 또 두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 질서인데 이를 파괴하는 행위다. 셋째, 복제인간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따라서 상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인간복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모두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중에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복제인간과 같은 단위생식(單性生殖)은 부자간의 정체성과 남녀간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문병성

# 현존하는 적중을 최고수준의 역학, 육임을 아시나요?

## 역학공부 긴 방향의 끝! 육임이 책임집니다.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효사 선생 직강!

제5기 육임강의를 3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개강 합니다.- 등록마감 : 2월 28일

-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 강북구청 옆 건물 일심빌딩 402호 육임학당 효사숙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 건물 4층)
- ▶ 교재 : 저서 『효사육임강의록』 ★ 기타 문의사항 : (02) 998-8683

### 효사 선생 육임 '인터넷강의' 시작안내

■ 인터넷강의 안내 <http://www.taotemple.net> 매기 12월, 3월, 6월, 9월 첫째 금요일 시작 3개월

- ▶ 강의비용 : 1,500,000원
- ▶ 교 재 : 저서 『효사육임강의록』 무료증정
- ▶ 수강방법 : 100 ~ 120분씩 28회 각회 5번, 6개월 수강
- ▶ 질의응답 : FAX(02-908-8683)
- ▶ 특 전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정회원 영입
- ▶ 강의일시 : 2003년 1월부터
- ▶ 등록방법 : 입금후 ID 교부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효사선생 육임 관련 저서안내**

육임 3개월 하면 사주(四柱) 10년 보다 잘 맞습니다. 육임은 왜 백백백중의 적중력을 갖는가? 전문가용 진화문제 상담용으로 최적 - ★ 백백백중 ★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전12권 가격:2,500,000원 부록:비디오 테이프 1권(필수)인 원고도 동봉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 백백백중으로 적중합니다.

육임신수비결 가격:250,000원 총753페이지

이제는 육임신수비결 1권이던 1년 신수, 평생 모두 해결 됩니다.

육임강의록 가격:3000,000원 총1663페이지

육임강의록 1권으로 3개월만 공부하면 사주공부 따로 학원 필요가 없습니다.

육임비디오강의 가격:900,000원 총28개

『육임학당요사숙』 제1기 강의가 생생하게 살아서 남기 있는 육임의 이정표.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CD 가격:2,000,000원 총12개

원화상만 시간, 방문상담 시간만 선택하면 순차적으로 모두 적중시킵니다.

효사육임인터넷강의 가격:1,500,000원 총112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신부, 시간적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한 육임인터넷 강의.

# 운명의 아킬레스건 사주팔자! 육임으로 극복하세요!!!

## 효사선생 육임 관련 저서안내

###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수정보완본 전12권

▶ 본 책은 토정비결처럼 쉬운 확용서입니다. 가격:2,500,000원 부록 : 비디오 테이프

- ★오해를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 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문 열고 들어서는 사람(전화)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 무슨일로 왔는지, 전화했는지
  - ▶ 무슨 비밀한 사정을 알고 있는지
  -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
  -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 ▶ 동업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 과거사인지, 미래에 일어 날 것인지, 언제 벌어질 일인지
  - ▶ 지금 무슨 귀신에게서 해괴물을 당하고 있는지
  - ▶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지
  - ▶ 귀신의 해괴물로 생긴 병인지 아닌지
  - ▶ 부동산이 팔릴 것인지, 아닌지, 언제쯤에나 팔릴 것인지
  - ▶ 선거에 당선 될 것인지, 아닌지
  - ▶ 돈을 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언제쯤이면 벌릴 수 있는지
  - ▶ 경기에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질 것인지
  - ▶ 가솔한 사람이 집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언제 올 것인지
  - ▶ 도둑 맞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못 찾을 것인지
  -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 것인지,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 ▶ 현재 팔고자 하는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 ▶ 올해는 어떤 농사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
  - ▶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 언제 비가 올 것인지, 비가 그칠 것인지
  - ▶ 현재 누구의 산소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인지
  - ▶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
  -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일이 벌어지는지
  - ▶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이 될 것인지, 언제 이사하는 것이 좋을까?
  -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사람인지
  -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자가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 二男一女인지, 一男二女인지
  - ▶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고칠 수 없는 병인지
  - ▶ 수법(철도 시선 곳 부작)을 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 각종 시험, 선거에 붙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 ▶ 직장에서 승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 임신한 아기가 남아인지, 여자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 것인지
  - ▶ 결혼이 성사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언제쯤이면 결혼을 할 것인지
  - ▶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못 찾을 것인지
  - ▶ 취직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된다면 언제쯤이면 되는 것인지
  - ▶ 각종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 ▶ 이 산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 ▶ 올해 농사는 무엇을 심는 것이 좋을 것인지

모든 인간사는 이 책만 보면 역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토정비결처럼 쉽게 보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백백백중 합니다.

본 책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인 철학박사 고복자 효사 선생께서 쓰신 역학으로 10년이상 사주공부하신 분들보다 사주를 모르는 분들께서도 이 책을 옆에 놓고 토정비결처럼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운세를 보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저서로서 본 책이 발간된 이후 3년에 걸쳐 그 정확도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 내용이 맞고 안 맞고를 걱정하지 마시고, 각 일(各日), 각 시간(各時間)마다 송곳처럼 꽃이놓는 내용을 나름대로 다듬어 더욱 요령있게 말끔히 정리한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문의**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복문**